

[보도자료] 쿠팡풀필먼트서비스, 3인 각자 대표 선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물류 혁신에 속도 낸다

2022. 1. 18.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법무부문 대표이사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사부문 대표이사

무노스 제프리 로렌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오퍼레이션부문 대표이사

- 인사, 물류 오퍼레이션, 법무부문 전문가 3인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해
- 전국 물류 인프라 확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업계 최고 수준이자 가장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투자와 노력 이어갈 것

2022. 1. 18. 서울 -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새해부터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엄성환 인사부문 대표이사, 정종철 법무부문 대표이사, 무노스 제프리 로렌스 오퍼레이션부문 대표이사 3인이 각자 주요 부문을 맡아 시너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고객감동을 실현하는데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전국 물류 인프라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업계 최고 수준이자 가장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 회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분야에 투자와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쿠팡은 2020년 이래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약 2500억원을 투자해 왔다. 이를 통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고율을 30% 감소시키는 등 작업자 안전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물류 업계에서 가장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사부문 대표이사는 이십여 년간 채용, 인재양성, 조직개발 등 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서 2015년 쿠팡에 합류해 2018년부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인사부문 총괄 리더로 근무해왔다. 쿠팡 입사 전에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잡코리아에서 HR 매니저로 재직했다.

무노스 제프리 로렌스 오퍼레이션부문 대표이사는 2018년 쿠팡에 합류해 2019년 9월부터 물류 오퍼레이션 총괄 리더를 맡아왔다. 쿠팡 입사 전에는 글로벌 기업 아마존에서 10년 넘게 다양한 직책을 역임했고 오퍼레이션 관련 경력이 주를 이룬다.

더불어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정종철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법무부문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정종철 대표이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기업법무 전반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컴플라이언스 및 업무환경, 안전 등 ESG 경영 강화를 위한 법률 지원 업무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1년부터 직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법률 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문화 변화관리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두루 담당해 왔다.

한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전국 각지에 혁신 물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 2년간 전라북도 완주, 경상남도 창원, 김해, 충청북도 청주,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 1조5000억원을

이상을 투자해 신규 물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만3000여명의 지역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수 백명의 안전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화재 및 화재 대비, 업계 최초의 유급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쿠팡케어 도입 등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물류센터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 업계 관행과 달리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직고용 상시직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모든 직원들은 경쟁력 있는 급여를 비롯해 근무수당, 휴식시간 보장 및 4대 보험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